

# '광주형 RE100' 닷 올렸다

광주시·한국RE위·광주기업RE추진협 업무협약  
기업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 재생에너지화  
국내서 SK 6개사 뿐...기업 동참 없이는 '빈 수레'

광주시가 RE100(Renewable Energy 100%) 전문지원단체인 한국 RE100위원회와 손을 잡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여정에 나섰다.

하지만 글로벌 RE100에 국내에서는 SK 계열 6개사만 가입될 정도로 척박한 상황이라서 기업들의 동참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칫 빈 수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캠페인이다. 2014년 시작돼 현재까지 구글, 애플, GM, 아케아, 3M, 나이키, AXA, BMW Group, 밴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벅스 등 288개 기업이 가입했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RE100위원회, 광주기업RE100추진협의체와 광주형 RE100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 RE100위원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의 에너지, 기후변화 등 전문가 20여 명으

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9년 출범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RE100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형 RE100(K-RE100) 가입 기준을 제정했고, 새만금산업단지 RE100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충남도 RE100 자문 등을 맡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 RE100위원회는 광주시에 글로벌 RE100 정책과 기술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에 사무국을 개설해 광주기업의 RE100 가입에 대한 자문·심사, 모니터링, 투자유치와 재생에너지 조달 등 각종 지원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광주시는 협약이행에 필요한 활동을 뒷받침한다.

또 광주 RE100추진협의체는 광주 소재 기업들이 에너지이용 효율화, 재생에너지 직접 설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RE100에 참여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문가의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자문을 통해 광주 소



재 기업들이 필요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가 적잖아 갈 길이 멀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탄소국경세'(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입 제품에 관세 부과)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는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앞다퉈 RE100에 가입, 부품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에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SK하이닉스와 휴리스, 텔레콤 등 SK 관련 6개사가 전부다.

광주에서도 한국에너지공단을 주축으로 세방전지, 오비맥주,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13개 기업과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꾸렸을 뿐 RE100 가입은 전무

해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과 같은 저탄소, 친환경 경영의 도입이 필수적이어서 수년 내 얼마나 많은 지역기업들이 RE100 프로젝트에 동참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한국RE100위원회는 한국형 RE100 가입 기준을 제정, 국내 기업들의 RE100 가입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위원회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빌려 광주를 RE100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거리가 산뜻해요"...동구 충장로1가 간판 '새 단장'

광주 동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충장로1가 간판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이번 사업은 사업비 4억4천만 원을 투입해 충장로 1가 스타벅스(충장로점)에서 충장로우체국 사거리 구간 내 53개 건물, 87개 업소의 간판을 새롭게 단장했다.

동구는 충장로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원색적이고 노후화된 간판, 대형 돌출간판 등을 정비하고 업소별 특성과 개성을 살린 '벽면간판'과 '경관형 안내간판'을 제작해 한층 아름답고 깨끗한 길고 싶은 거리로 거듭났다.

## 서구 "마을문제? 5명만 모이면 못할게 없어요"

광주 서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들어간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모임형성 동아리 ▲청년·청소년 동아리 ▲기후위기대응 녹색환경만들기 ▲포스트코로나대응 공동체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동체네트워크 ▲마을의제 실현 ▲마을미디어사업 ▲공유육진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11개 분야로 총 3억4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5개 내외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 남구, 건설기계 면허증 '전자식 발급시스템' 도입

광주 남구는 내구성이 강한 PVC 재질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위해 자동화 기기를 도입,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발급에 나선다.

남구는 18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 검사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 단축과 편의 제공을 위해 전자식 발급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면허증 전자식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전자식 면허증은 물기와 오염물질로부터 강한 내구성을 갖춘 PVC 재질이 사용되며, 플라스틱 카드에 잉크를 인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 북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실시

광주 북구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높은 저녹스 버너를 장착해 연소(증발)량을 시간당 0.1티만으로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다.

특히 배기가스 배출 시 방출되는 열을 흡수,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연간 13만 원 상당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북구는 총 6억 2천만 원으로 오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신청한 주민에게 일반 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광산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받아 안전하게 철거

광주 광산구가 석면비산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광산구는 사업비 4억3,700여만원을 투입해 100개 주택, 10동 축사·창고, 8동 지붕개량을 돕는다.

신청 접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달 31일까지 하면 된다. 가족·임차인 등이 소유자를 대신 신청서를 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지원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한다.

## 광주시 새마을회, 새 회장에 정경주

"시민에 인정받고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전개 할 것"

광주광역시 새마을회는 지난 2일 광주시 새마을회 건물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해 개표 결과 정경주 당선자가 전체 유효 표수 31명 중 16표를 얻어 15표만을 획득한 이상동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회장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인단 수는 34명인데 3명이 코로나 19 관계로 불참했다.

새마을회가 민영화된 후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새마을회 운영을 임원들의 새마을회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회장 임후보자는 3천만 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으며, 3년간 총 9천만 원의 출연금을 내고 봉사하고 있다.



당선된 정경주 회장은 "시민에게 인정받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모범이 되는 새마을회를 운영하여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5개 구 새마을회 회장 선거에서도 연출연금 1천만 원을 내고 있으며, 임원들은 연 3백만 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다.

서선욱기자

## 한빛원자력본부 '태양광 발전 확대'

유휴 부지에 발전용량 7.4MW 4·5·6호기 본격 가동



한빛원전 내 유휴부지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소 '한빛 솔라파크' (사진=한빛원자력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정부의 탄소 제로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나섰다.

한빛원자력본부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발전소 유휴 부지에 건설한 발전용량 7.4MW의 한빛 솔라4·5·6호기를 본격 가동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빛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빛 솔라 1·2·3호기(14

MW)를 구축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한빛 솔라 4·5·6호기를 추가 건설해 발전용량은 총 21.4MW까지 크게 늘어났다.

한빛본부 내 태양광 발전용량은 3300여 가구가 1년 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여기에 한빛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 1 태양광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농사를 지으면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다.

현재 마을 1곳에 설치를 완료한 가운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의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확대에도 노력해 국가 전력산업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연금진흥재단  
Korea Pension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남에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계층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고소득층	1.1배 (240,833원)
4분위	1.7배 (125,531원)
3분위	2.1배 (79,147원)
2분위	2.7배 (48,103원)
저소득층	5.3배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  
공적연차 1977~2000